돈 가진 왕, 돈 이긴 왕

(마27:27~31)

27.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28.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29.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돈 가진 왕, 돈 이긴 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돈 가진 왕 돈 이긴 왕'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돈을 가진다, 돈을 이긴다'고 할 때 이 돈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오늘 대한민국 사회, 아니면 인류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동서를 막론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좋아했던 것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살면서 좋아하는 가치의 총화로서의 돈, 가치들의 대표로서의 돈의 의미로 이 돈을 사용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세상에서 다른 가치들을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 있는 것들의 총화로서 마몬을 얘기하십니다. 돈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돈이라는 얘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희롱을 하고 조롱하며 침 뱉고 갈대로 때립니다.

바로 그 앞에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선민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택하는 장면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바라바는 마치 베드로가 우리가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바라바 예수가 그 이름인 자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름에서 예수를 뺐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분에게 국한시키기 위한 의도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바라바를 택한다는 것은 바라바예수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가 기록할 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랴', 바라바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칭할 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꼭 구분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선민들이 그 바라바예수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느냐,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자! 예수님이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걸치시게 되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워 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희롱하다가 홍포를 벗기고 갈대를 빼앗아서 갈대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유대인의 왕이여 왕 노릇하라'고 놀려댑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을까, 왜 오른손에 갈대를 들렸을까, 왜 홍포를 입혔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통용되던 동전에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황제 티베리우스의 모습이 어땠냐 하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홀을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그대로 재연시킨 것이에요.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모습을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적용시켜 본겁니다.

적용시킨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지요, 제가 풀어서 얘기해봅니다.
'아! 유대인의 왕이라며? 왕인데 왜 면류관이 없냐, 왕인데 왜 통치권을 상징하는 홀이 없냐, 왕인데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는 왜 자주색 망또가 없냐?'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인데 왜 왕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느냐?'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왕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왕의 모습, 그 왕의 틀, 왕의 컨셉을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니까 왕다운 면모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선민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 된, 선민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좀 더 한번 깊이 살펴봐요.

여러분, 왕이 누구죠? 왕.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동시대인들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의 대명사가 돈이라 그랬지마는 그걸 세분화 시키면 권력, 돈은 물론이고, 그리고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명예, 인간이 오복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누구냐?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는 자에요.
만인이 좋아하는 것을 그 만인보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자가 왕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좋아하는 가치를 가장 많이 가진 자요, 그 세상의 모든 가치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을 때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플러스, 국회의장 플러스, 대법원장 플러스, 삼권이 통합돼서 한 사람에게 집중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이건희 씨, 거기에 플러스 문화예술 원장, 거기에 플러스 서울대 총장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박사가 다~ 그 왕에게 왕을 섬기기 위해 집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집결된 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놓고, 이 가진 자로서 세상의 가치가 집중된 왕의 컨셉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거기에 지식도 보이질 않고, 아무것도 보이질… 명예도 보이질 않고, 군대도 보이질 않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갈대를 들려주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바로 세상의 왕의 컨셉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선민의 왕인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왕이 아닙니까? 왕입니다.
근데 어떤 왕입니까? 세상의 가치들이 집중되어서 그 가치를 가진 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들을 이긴 왕이십니다.
이긴 왕, 이겼기 때문에 그 가치들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가치들을 이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돈을 이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돈을 이겼다는 얘기는 돈이 없어도 기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돈을 이긴 왕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망을 이겼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마귀를 이겼다, 무엇이 마귀를 이긴 겁니까, 네?

사망을 이겼다는 말은 영생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는 말로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근데 마귀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는 게 뭐에요? 도대체.
구체적이질 않아요.
요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이긴 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들이 하는 말 중에 마귀를 이겼다 그래요, 그 마귀를 이긴 게 뭐에요?
우리도 마귀를 이겨야 되요.
그런 말을 신천지에게 뺏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더 세밀하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겼다는 게 뭐에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종노릇 하게 한 게 뭡니까?
선악과에요,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좋아할 만한 가치들을 발견해 내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의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는 것은 흉악하게 생긴 영적인 존재의 마귀를 때려눕히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좋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정해진 가치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왕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 사회가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함께 좋아하고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가치들을 가진 분으로서의 왕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걸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를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믿는 사람의 가정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돈을 이긴 왕이 다스리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돈을 이기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 돈이 없어도 못할 일이 없는 가정, 돈이 없어도 기쁜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돈 때문에 기쁘지 않은 가정, 돈이 있어도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가정, 돈이 있어도 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돈이 있다고 할 일을 찾아내는 게 아닌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근데 교회가 헌금이 남아돌 때 꼭 그 돈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일을 벌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왜 선민의 왕이십니까?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까?

선택을 하신 이유는 우리도 선택하라고 선택해 주신 겁니다.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선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끌려갈 만큼 좋아하고 사랑할만한 대상이 세상에 많아요.
태어난 아기, 내 새끼를 보면 그거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뺏길 일이 많아요.
돈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런 뭐 인기, 그것을 위해서 연예인들은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식. 이런 모~든 것들 마음이 끌릴만한 것들이 많아요.
재산 중에 집, 자동차, 하다못해 작은 물건들 다~ 취미생활 골프, 마음 뺏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경 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신경 쓰이고 좋아할 만한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 갈만한 좋은 가치들을 이겨야 되요, 이겨야 되요.
그 가치 중에 어떤 것이 없으면 못 살겠는 그런 상태는 끌려가고 있는 것이고 그 가치에 굴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 가치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 가치를 가졌다는 것은,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그 가치가 그들을 가진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마귀가 세상의 가치를 이용해서 그 왕을 사로잡은 거고, 마귀가 세상의 왕들에게 선악을 판단하기 위해서 돈이 좋은 거다, 권세가 좋은 거다, 권력이 좋은 거다 이렇게 가르쳐서 속여서, 그것들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상태에요.
세상의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가짜 가치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가진 왕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까,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의 권세를, 물론 주님은 종말 때가 되면 우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 이전에 이미 왕으로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 안으로 선택해서 끌어들이실 때는, 세상의 가치를 가진 왕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이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돈을 가진 왕이 아니라 돈을 이긴 왕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높은 자리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 대통령의 자리는 우리가 추구할 것도 아니고 갖고 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뺏길까봐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이루지 못했다고 실패감에 좌절에 빠져있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나를 왕의 자리에 세우시고 할 일이 있으시면 세우실 것이고, 아니면 말 것이고, 돈이 주어지는 것도 뜻이 있어서 돈으로 할 일이 있으면 주어질 것이고 아니면 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에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일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뜻이 없는 일을 왜 합니까? 뜻이 없는데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돈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 뜻대로 일을 행할 때 그게 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교회를 빚져서 예배당을 짓습니까?
돈이 안 주어지면 예배당 짓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왜 빚을 예배당을 집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을 가진 왕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려는 선민들의 착각이고 그 예수님은 바라바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 얘긴 다들 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돈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자녀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인기로부터의 구원이고, 건강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을 뺏길만한 모든 가치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말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생겨난 것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애인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하나님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그게 다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러므로 구원은,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길만한 가치들로부터의 구원이고, 죄악은 뭐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좋다고 마음이 달라붙은 상태가 죄악이고 그게 더러움이고 그게 바로 간음이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기뻐합니까? 그게 간음입니다, 자식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게 간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왜 로마 이방인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합니까?
'왕' 하면 그들은 왕의 컨셉은 오직 그것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가치가 집중되어 있다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틀로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라고 하시면서, 선민의 왕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묵묵부답이신 중에 한마디만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래 맞다 나는 왕이다' 그 한마디만을 주장하십니다.
지금 이 침 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상황에서 내가 왕이라는 말씀 한마디는 끝까지 고집을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왕이 갖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분이 자꾸 아무 말도 안 하고 왕이라는 말 한마디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왕을 왕 되게 하는 이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이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분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가 없고 기쁨을 위해서도 필요가 없고 보람을 위해서도 필요가 없고 이 세상의 가치가 그분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긴 왕으로서의 왕 되심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가진 왕이 아니라 이긴 왕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내 마음을 끌만한 가치들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닙니까?
이긴 왕들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예수님을 가진 왕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없다고 비난하는 이방인들, 예수님을 가진 왕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좇는 잘못 된 선민들, 다 내가 아니게 해 주시고, 오직 이긴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